



21일 고예림이 페퍼스타디움에서 스파이크 포즈를 취해 보이고 있다.

고예림 “봄배구 향해 강스파이크”

FA 통해 페퍼스 합류... “제일 필요로 하는 팀에 올수 있게 되어 기뻐” “9년 만에 만나게 된 장소연 감독님과 시너지·열정가득한 응원 기대”

“스포츠 사랑 넘치는 광주에서 좋은 경기 보여드리겠습니다.”

페퍼저축은행 A1페퍼스의 ‘새 얼굴’ 고예림(30)이 2025-2026시즌 페퍼스 유니폼을 입고 뒀다. 페퍼스는 지난 4월 자유계약(FA) 시장에서 현대건설 소속 아웃사이드 히터 고예림을 영입했다. 페퍼스는 지난 시즌 ‘수비’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다. 리시브가 제대로 되지 않아 단순한 플레이를 하게 되고 득점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 반복됐기 때문. 팀의 약점이 된 수비를 보완하기 위해 장소연 페퍼스 감독은 팀의 장벽으로 고예림을 택했다.

장 감독은 고예림이 ‘공수 균형을 갖춘 선수’이자 안정적인 리시브를 갖추고 있어 ‘수비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고예림은 지난 시즌 현대건설에서 리시브 효율 36.05%, 블로킹은 세트당 0.18개, 디그는 세트당 2.35개를 기록했다.

고예림은 “나를 제일 필요로 하는 팀에 가고 싶었고, 장소연 감독님이 적극적으로 찾아주셔서 페퍼스를 선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장 감독과 고예림의 인연은 한국도로공사에서 시작했다. 2013-2014 시즌 한국도로공사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 2순위로 입단한 고예림은 2017년 6월 IBK기업은행으로 이적하기 전까지 장 감독과 같은팀 선수로 뛰었다. 그리고 올해 4월, FA 자격으로 페퍼스의 유니폼을 입게 되면서 9년만에 같은 팀 선수와 감독으로 만나게 됐다.

아직까지 ‘감독님’보다 ‘장쌤’이 입에 더 붙고 민이라는 고예림은 선수시절 봤던 장 감독의 열정이 감독으로 만나게 되면 어떤 시너지를 낼지 기대했다고 말했다.

고예림은 “공격보다 수비가 나의 강점이라고 생각한다. 무릎 부상을 입기 전에는 공격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는데, 부상 이후 몸도 따라주지 않고 실력도 제대로 나오지 않으니 자신감을 많이 잃었다”며 “그렇지만 지금은 몸도 많이 좋아졌고 예전의 리듬을 찾은 것 같다. (수비 뿐만 아니라) 공격적인 부분도 자신감이 생겼다”고 이야기했다.

타 구단 선수로서 바라본 페퍼스는 무너질듯 무너지지 않는 팀이었다.

고예림은 “현대건설이 있을 때 바라본 페퍼스는 창단 초기엔 어린 선수들이 많았어서 (경기 중) 기복이 심했다면 장 감독님이 오시고나서는 팀이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기복 없이, 자연스러운 경기를 할 수 있도록 팀에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전 소속팀 ‘현대건설’과의 경기도 기대하고 있다.

고예림은 “광주에 오기 전 강성형 현대건설 감독님께 인사드리러 갔는데, (장난스럽게) 만나면 살살해달라고 하셨다. 이 말을 듣자마자 더 잘하고 싶은 욕심이 생겼다”고 웃어보였다.

고예림은 팀 분위기가 좋아 적응도 어렵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국가대표팀에서 함께했던 박정아, 이한비, 한국도로공사시절 같이 뛰었던 하혜진, 중학생 때 운동메이트였던 한다혜 등 입단 전부터 알고 지낸 선수들은 적응에 큰 도움이 됐다.

하루빨리 팬들과 만나고 싶다는 고예림은 “광주 시민들의 스포츠에 대한 사랑이 크다는 건 예전부터 알고 있었고, 그래서 평소에도 광주에 대한 인상이 좋았다”며 “페퍼스 선수로서 새로운 유니폼을 입고 뛰게 됐는데, 많은 응원 해주신다면 걱정하지 않고 좋은 경기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글·사진=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피로 골절 악재... 배구 남녀 대표팀 정지석·정지윤 일정 차질

남자대표팀 이우진 대체

올해 국제대회를 준비하는 배구 남녀 국가대표팀의 핵심 공격수인 정지석(대한항공)과 정지윤(현대건설)이 피로 골절 증세로 정상적인 대표팀 일정을 소화하기 어렵게 됐다.

21일 대한배구협회와 해당 구단에 따르면 정지석과 정지윤은 16명의 남녀 대표팀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현재 재활 중이어서 훈련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허수봉(현대캐피탈), 나경복, 임성진(이상 KB손해보험), 김지한(우리카드)과 함께 아웃사이드 히터진의 주축인 정지석은 정강이 부분 피로 골절로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지난 8일 진천선수촌에 소집됐다가 지금은 원소속팀인 대한항공으로 복귀해 트레이너와 함께 대표팀이 제공한 재활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정지석은 다음 달 6일과 7일 천안 유관순체육관에서 열리는 네덜란드와 평가전에 불참한다.

하지만 정지석은 3개월여 재활 기간을 거쳐 9월 예정된 세계선수권에는 합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사에나에 라미레스 남자대표팀 감독은 정지석의 교체 선수로 이탈리아 명문구단인 베로발리 몬차에서 뛰는 20세의 아웃사이드 히터 이우진을 발탁했다.

키 195cm의 좋은 신체 조건을 가진 이우진은 경북사대부고 출신으로 2023년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국제배구연맹(FIVB) 19세 이하(U-19) 월드컵 연신 때 호쾌한 공격으로 한국이 3위를 차지하는데 앞장서고 이탈리아 몬차에 19세의 나이로 입단했다.

고교 배구 선수로는 처음으로 국외에 진출한 이우진은 “배구계의 손흥민이 되고 싶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이우진은 이미 입국해 대표팀에 합류, 진천선수촌에서 담금질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자 대표팀도 상황이 좋지 않다.

같은 아웃사이드 포지션인 정지윤이 정강이와 발바닥에 피로 골절 증세가 있어 정상적인 훈련 소화가 어렵기 때문이다.

정지윤은 지난 17일 인천 삼산월드체육관에서 열린 세계여자올림픽대표팀과 친선경기 때 대표팀 엔트리에서 빠졌다.

소속팀 현대건설은 정지윤의 피로 골절과 관련한 의사 소견서를 대표팀에 제출한 상황이다.

여자대표팀은 1주 차 발리볼네이션스리그(VNL) 경기를 위해 오는 28일 브라질로 출국하며, 정지윤은 동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장 실전에 뛰지는 못하지만, 대표팀과 동행하며 대표팀 전술과 상대팀 분석 등을 함께하기 위한 것이다.

여자팀은 세계올림픽대표팀과 경기 때 아쉬운 경기력을 보인 데다 핵심 공격수인 정지윤까지 빠지면서 전력 약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선수단, 전국육상선수권 선전

광주·전남 선수단이 ‘제54회 전국종별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 메달권에 이름을 올렸다.

21일 열린 대회 남고부 400m에서 장근오(광주체고)가 48초91 기록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황원우(광주체고)는 49초79로 질주를 끝내며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남고부 400m 계주 경기에서는 광주체고(오희성, 박태연, 기은결, 김찬)가 3번째로 결승선을

통과하며 동메달을 추가했다.

200m 남자 일반부 경기에서 모일환(광주시청)이 21초11로 은메달을 획득했다. 1위는 보은군청 이창수(20초94)의 몫으로 돌아갔다.

여자일반부 높이뛰기 결승에서는 임민경(광양시청)이 1m46으로 은메달을 더했다.

19일 개막한 이번대회는 23일까지 열린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17전 18기’ 박정환, 신진서 꺾고 LG배 세계바둑 8강 진출

한국 바둑랭킹 2위 박정환 9단이 힘겹게 신진서의 벽을 넘어 세계 대회 우승을 향해 진격했다.

박정환은 21일 경기도 광주 곤지암리조트에서 열린 제30회 LG배 조선일보 기왕전 16강전에서 한국 랭킹 1위 신진서 9단에게 176수 만에 백 불계승했다.

이로써 박정환은 신진서를 상대로 17연패의 기나긴 사슬을 끊었다.

박정환이 신진서에게 승리한 것은 2022년 7월 YK건기배 본선 이후 무려 2년 10개월여 만이다.

통산 상대 전적은 24승 46패가 됐다.

사실상 결승전으로 불린 이날 대국에서 백을 잡은 박정환은 초반 우하귀에서 벌어진 첫 전투에서 신진서의 실수를 틈타 유리한 형세를 만들었다.

불리해진 신진서는 중앙 백 대마를 끈질기게 공격하면서 하변과 좌상귀에서도 반전을 노렸으나 박정환은 막판까지 철벽 방어를 펼치며 완승을 거뒀다.

함께 열린 16강전에서는 변상일·강동윤·신민준·설현준·안국현 9단이 승리해 8강에 올랐다.



박정환(왼쪽)이 신진서를 상대로 17연패를 끊고 LG전 8강에 올랐다. <한국기원제공>

일본 이치리키 료 9단은 김범서 6단을 누르고 4년 만에 LG배 8강에 이름을 올렸고, 대만 1인자 쉬하오홍 9단도 나카무라 슌미레 4단에게 승리해 LG배에서 처음 8강에 진출했다.

이번 대회 와일드카드로 출전한 여자기사 최정과 스미레는 아쉽게 16강에 돌아섰다.

대국 후 추첨 결과 박정환과 변상일이 8강에서 맞붙게 됐고 강동윤은 신민준과 4강행을 다투게 됐다.

설현준은 쉬하오홍, 안국현은 이치리키와 각각 대결한다.

8강전은 8월 4일 열린다.

LG배 우승 상금은 3억원, 준우승 상금은 1억원이다.

제한 시간은 각자 3시간에 40초 초읽기 5회다.

/연합뉴스

73 광주일보 73년 - 유튜브 2천만뷰 돌파

즐거움

문화 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GAC 공모전시
사모곡 비우면서 채우는... : 류현자 개인전

일시 : 2025-5-2(금) ~ 2025-6-1(일)
공연 있는 날 10:30 ~ 19:30
공연 없는 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

광주시립교향악단 395회 정기연주회 '형제들'

일시 : 2025-05-30(금) 19:3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문의 : 062-613-8241

비우면서 채우는... : 류현자 개인전